

국별 리포트

러시아 국가신용평가 리포트

2011. 0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1,708천 km ²	G D P	14,769억 달러(2010년)
인구	141백만 명(2010년)	1 인 당 G D P	11,022달러(2010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Russian Ruble (RUB)
대외정책	미국의 일방 독주 견제, 자국 역할 증대 방안 모색	환율(달러당)	30.37(2010년)

- 세계 최대의 영토와 풍부한 천연자원, 세계적인 과학기술력 및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국가임.
- 1991년 구소련 체제 붕괴 이후 1998년에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했으나, 2000년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에 힘입어 2008년까지 연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세를 기록했음.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침체로 BRICs 국가 중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2009년 말 이후 더딘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러시아는 석유 및 가스 분야에 편중된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불투명한 제도, 만연한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 등이 외국인투자 유치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제성장률	7.4	8.1	5.6	-7.9	4.0
재정수지/GDP	7.4	5.4	4.1	-5.9	-4.6
소비자물가상승률	9.7	9.0	14.1	11.7	6.8

자료: IMF, EIU

□ 경제성장률 플러스 전환

- 2009년 러시아 경제는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10년에는 유가 상승, 정부의 부양정책 효과 가시화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됨.
 - 2010년 분기별 경제성장률 동향을 살펴보면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2%를 기록해 1분기의 3.1%에 비해 소폭 성장했으나 3분기에는 수출 증가 둔화, 여름에 발생한 가뭄과 산불로 인한 농작물 생산 차질 등으로 2.7%로 상승 폭이 축소되어 취약한 경기 회복세를 보였음. 4분기 성장률은 다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어 2010년 경제성장률은 2009년 -7.9%에 비해 크게 회복된 4% 수준을 기록함.
 - 산업 분야별로는 제조업이 경제성장세를 이끌었고 교통과 통신 분야가 그 뒤를 이었음. 도·소매업은 2010년 2분기에 3.7% 증가해 국내 소비 회복세를 반영했으며 건설업과 금융업은 각각 금융조달의 어려움과 주요 건설업체의 부도, 과도한 부실자산 부담 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부진했음.
- 2011년 러시아 경제는 내수 회복을 바탕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점진적인 실질임금 상승과 실업률 하락이 내수 진작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11년 경제성장률은 2010년과 유사한 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

- 소비자물가는 2000년대 이후 오일달러 대량 유입, 외국인투자 증가 등으로 2006년부터 최근 4년간 최저 9%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세계적인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2008년에는 14.1%를 기록해 소비자물가 급등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음.
- 2009년 들어 러시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루블화 강세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8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2010년 7월에는 1998년 이후 최저치인 전년동월 대비 5.5%를 기록했음. 2010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4.4%에 그쳐 전년 동기의 7.4%에 비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됨.
- 2010년 8월 이후 가뭄과 산불의 영향으로 식료품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었으나 2010년 물가상승률은 하반기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완만한 상승 폭을 보이며 2009년의 절반 수준인 약 6.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 하반기의 예산지출 확대, 2011~12년 총선과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보다는 다소 높은 7~8%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 폭 축소

-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에너지 수요 감소와 정부의 에너지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석유수출세 인하 조치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경기부양을 위한 막대한 재정지출로 인해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음.
- 2010년에는 고유가에 힘입어 예상보다 재정적자 폭이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 러시아 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1~3분기 중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2.2%를 기록하는 데 그쳐 전년 동기의 4%에 비해 크게 감소했음. 그러나 4분기에 집중된 과다한 예산 집행으로 적자 규모는 다시 소폭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0년 말 GDP 대비 4.6%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됨.
-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재정적자를 차입과 국영기업 지분 매각으로 충당할 계획임. 그동안 예산적자 보전을 위해 활용하던 적립기금(Reserve Fund)으로부터의 예산 전용은 2011~14년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함.

- 특히 900여 개에 달하는 국영기업 지분 매각으로 러시아 정부는 2011~15년까지 총 580억 달러를 마련할 전망이다, 2011년부터 연간 약 1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임.
- 러시아 정부는 2010년 8월에 발표했던 2011~13년 예산안을 10월에 수정해 국방관련 비용 증대, 보건, 교육 등 복지 분야의 지출 확대를 반영했으며, 향후 선거 일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세입과 세출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 그러나 2011년 상반기까지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1년 중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소폭 축소된 GDP 대비 3.8%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2. 경제구조·정책

□ 에너지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한 경제구조

-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원유, 천연가스)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라 경제전반이 큰 영향을 받는 구조임.
 - * 에너지 산업 의존도: 총수출의 57%, GDP의 약 21%, 재정수입의 약 48%
- 2008년 상반기까지는 고유가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왔으나, 2008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급락세로 돌아섬에 따라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고, 2009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세 반전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침체로 에너지 수요 및 원유 수출이 감소해 경상수지가 전년대비 크게 감소했고 재정수지는 적자로 전환되었음.
- 2010년 들어 고유가로 에너지 수출 및 관련 세입이 증가해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취약한 경제구조 개선이 필요함.

□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 러시아는 원유, 가스, 석탄, 철광석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도 1억 4천만 명에 달해 내수기반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또한 2010년 기준 GDP규모가 1조 4,769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10위(2009년 12위 기록)의 경제대국임.

- * 원유(2009년 말 기준): 확인매장량(742억 배럴) 세계 7위, 생산량(연간 4.9억 톤) 세계 1위
- * 천연가스(2009년 말 기준): 확인매장량(44.4조 m³) 세계 1위, 생산량(연간 5,275억 m³) 세계 2위

□ 산업구조 다양화를 위한 경제 현대화 정책 추진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과도한 원자재 분야 의존, 산업경쟁력 부족 등에 따른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생산의 현대화 및 기술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경제 현대화는 5대 전략산업에 대한 중점육성과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을 골자로 하고 있음.
 - 5대 전략 산업: 에너지 효율화(신 연료 개발 등), 원자력 기술, 우주 기술, 의료기술(진단장비 및 의약품 포함), 전략정보기술(슈퍼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 러시아 정부는 현대화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마련과 중점과제 이행을 위해 '러시아 경제의 현대화 및 기술발전에 대한 대통령위원회'와 '하이테크 및 혁신을 위한 정부위원회'를 설치했으며, 2009~10년 약 47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함.
- 러시아 정부는 R&D에 종사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모스크바 외곽의 스킨코보(Skolkovo) 지역에 첨단기술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이 단지는 에너지, 정보통신, 전자통신, 생의학, 원자력 기술 등 5개 분야의 연구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며, 러시아 정부는 동 프로젝트의 1단계 비용으로 3억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임.
 - 그러나 파격적인 세제 혜택(향후 10년간 지대, 부가가치세, 수익세 면제)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보호가 취약하고, 부정부패 및 자의적인 법 집행 만연 등 투자환경이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또한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대규모 국영기업 정부지분 매각 추진

- 2010년 10월에 정부가 900여 개 국영기업의 정부지분 매각계획(2011~15년)을 발표함에 따라 1990년대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이 단행한 민영화 조치 이후 최대 규모의 국영기업 지분 매각이 추진될 예정임.
- 2010년 7월에 이어 10월에 발표된 매각 대상에는 스베르뱅크(Sberbank), VTB(Vneshtorgbank), 로젤크호즈뱅크(Rosselkhozbank) 등의 국영은행, 로스네프트(Rosneft), 루시드로(RusHydro), 소브콤플로트(Sovkomflot) 등 핵심 국영기업이 포함됨.
- 러시아 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재정적자의 일부를 충당할 예정임. 900여 개에 달하는 국영기업 정부지분 매각으로 러시아 정부는 2011~15년 총 580억 달러를 마련할 전망이며, 2011년부터 연간 약 1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임.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이 자금의 일부가 연방정부 예산으로 활용되고 일부는 기업환경 발전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힘.
- 국영기업의 정부지분 매각은 정부의 경제 관여를 축소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적자 감축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현대화 정책에 부합하는 조치임.
 - 대규모 국영기업 지분 매각 계획이 가시화될 경우 일부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체질 개선 및 기술 혁신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뿐 아니라 러시아 전반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루블화 가치 안정

- 루블화는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 자본 유출 및 오일달러 유입 감소의 영향으로 급격히 약세로 전환되었음. 러시아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금융시장에 달러를 대규모로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를 보지 못해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환율의 변동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함.

- 2009년 들어 유가 상승 및 해외 자본 유입에 힘입어 2009년 2월 달러당 35.8루블까지 하락했던 루블화 가치는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며 동년 11월 29루블 수준으로 회복되었음. 2010년 1~10월 중에는 달러당 29.2~31.2루블 수준을 유지했으며, 2010년 연평균 달러당 환율이 30.37루블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 상 수 지	94,686	77,768	103,722	48,971	69,569
경 상 수 지 / GDP	9.6	6.0	6.2	4.0	4.5
상 품 수 지	139,269	130,915	179,742	111,585	152,516
수 출	303,550	354,401	471,603	303,388	382,708
수 입	164,281	223,486	291,861	191,803	230,192
외 환 보 유 액	295,277	465,878	412,548	416,649	479,400
총 외 채 잔 액	313,200	471,000	480,500	471,600	474,600
총 외 채 잔 액 / GDP	31.7	36.1	28.8	38.0	31.9
D . S . R .	13.8	9.2	11.5	11.7	13.8

자료: IMF, EIU

□ 총수출증가율 회복세 기록

- 2008년까지는 총수출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원유 및 가스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매년 연 20~30%대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해 왔으나, 2009년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해외 에너지 수요가 위축되어 총수출이 2008년 대비 35% 가까이 감소했음.
- 2010년에는 세계 에너지 수요 회복 및 고유가로 총수출이 다시 증가세를 회복해 19.8%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우랄산 유가 추이(US\$/배럴): 34.81('08. 12.) → 72.08('09. 12.) → 92.82('11. 1월말)

□ 경상수지 흑자 확대

- 2008년까지는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된 데 힘입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에너지 수출 감소가 상품수지 흑자 감소로 이어져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축소됨.
- 2010년 들어 1~9월 중 경상수지 흑자는 609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의 330억 달러에 비해 약 85% 증가하는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무역수지 흑자도 2009년 1~9월의 760억 달러에서 2010년 1~9월 1,145억 달러로 확대되었음. 이는 고유가에 힘입어 2010년 상품수출 규모가 38% 증가한 데 비해 상품수입은 31%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임. 2010년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4.5%인 696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1년 경상수지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 추세와 국제유가 전망을 감안할 때 전년 대비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폭은 GDP 대비 3%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외환보유액 증가세 회복

- 2002년 441억불에 불과하던 외환보유액은 국제유가의 상승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8월에는 5,96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
- 2008년 8월 이후 그루지야와의 전쟁 발발,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대규모의 자본유출이 발생했으며 루블화 환율 방어를 위해 보유외환을 소진한 후 외환보유액은 2010년 6월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 12월 1일에 4,831억 달러를 기록했고 연말에는 이보다 소폭 감소한 4,794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에는 이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총외채잔액 규모는 전년 수준 유지

- 2009년 총외채잔액 규모는 전년 대비 약 89억 달러 감소했으나, 경기 침체로 수출과 GDP규모는 급감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오히려 2008년 28.8%에서 2009년 38%로 상승했음.

- 2010년 총외채잔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4,74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수출과 GDP 규모가 다시 증가하면서 다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31.9%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 2011년 러시아의 총외채잔액 규모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09년 11.7%에서 다소 상승한 13.8%를 기록했으며, 2011년에도 이와 유사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안정

□ 메드베데프 대통령-푸틴 총리 체제의 안정적 유지

- 2008년 5월 푸틴 전 대통령의 후계자인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으로, 푸틴 자신은 총리로 각각 취임했으며, 현재까지는 정부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음. 2009년 경기침체 및 2010년 산불과 극심한 가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메드베데프와 푸틴은 여전히 높은 국민 지지도를 얻고 있음.
- 취임 이후 3년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현대화를 강조하는 등 과거 푸틴이 추구했던 정책과 차별화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두 지도자의 공개적인 권력투쟁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거의 없으며,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2012년 예정되어 있는 대선 후보 결정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임.

□ 집권여당의 의회 장악으로 정국 안정

- 2007년 12월 실시된 총선에서 당시 푸틴 대통령이 이끌었던 통합러시아당 (United Russia)이 전체 의석 450석 중 70%인 315석을 차지해 정국 안정이 유지되고 있음.
- 2010년 3월 실시된 지방 선거에서 통합러시아당의 지지도가 2008년 지방 선거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0월 지방선거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60~80%에 이르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정권 장악력을 과시했음.

2. 사회 및 소요사태

□ 실업률 안정으로 사회불안 가능성 낮음

- 200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계층간·지역간 빈부격차가 확대 되었으며, 특히 2008년 하반기부터는 금융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9.4%(2009년 2월 기준)까지 상승했으나 2010년 하반기 이후 6%대를 유지하고 있어 다소 안정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2009년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연금, 공공부문 급여 및 실업자 보호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수준은 유지하고 있어 경제난으로 인한 대규모 사회불안 가능성은 낮음.

□ 국지적인 소요사태 발생 지속

- 러시아는 소득불평등 경제구조, 부정부패 만연, 취약한 거버넌스, 급격한 정치변혁 등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로 평가되며, 실제로 2008년 이후 2010년 3월 모스크바 지하철 테러, 2011년 1월 모스크바 공항 테러, 2월 다케스탄 자살폭탄 테러 등 크고 작은 사회소요가 끊이지 않고 있음.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테러조직에 대한 엄정한 처리 방침을 유지하는 한편, 북코카서스 지역의 사회·경제 여건 개선을 통해 반정부세력을 무력화하는 강온 양면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러시아에는 현재 주도적인 야당 세력이 없어 현 정권을 위협할 만한 대규모 소요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유일한 야당세력인 러시아 연방 공산당(CPRF)의 세력은 미약하고 대부분의 노동조합도 친정부 성향임.

3. 국제관계

□ 미국, EU 등 서방 국가와의 관계 개선

- 2009년 9월 미국의 폴란드, 체코 전략미사일방어기지(MD) 구축계획 중단 선언에 이어, 2010년 4월 오바마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2009년 12월 만료된 전략적 핵 감축 조약(START 1)을 대체하는 신조약을 체결해 부시 대통령 시절 냉각되었던 양국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음.

- EU와도 공동관심사인 에너지안보, 과격주의 세력 척결 및 핵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정상회담에서는 EU가 러시아의 WTO 가입 지지의사를 공식 표명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음.

□ 중국과의 협력 강화

-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공동의 목적 하에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러시아는 특히 아시아 지역까지 에너지 수출 시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CIS 지역에서의 영향력 회복 모색

- 구소련 국가에 대해서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및 유라시아경제공동체(EEC)를 중심으로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여 역내에서의 영향력 회복을 모색하고 있음.
- 2009년 가스 대금을 둘러싼 분쟁을 겪었던 우크라이나와는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 집권에 따라 관계 개선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 7월 발효된 벨로루시와 카자흐스탄과의 관세동맹을 통한 역내 경제통합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국제시장 평가

□ 2009년 하반기 이후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상향 추세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외환보유액 급감, 유가 하락 및 대규모 자본유출 등을 이유로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음.

- OECD는 2009년 10월 러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등급 하향 조정한 후 2010년 1월 국가신용도 평가회의에서도 이를 유지했으나 2011년 1월 개최된 OECD 국가신용도 평가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지표 개선, 외국인투자 유입 지속, 양호한 외채현황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조정해 최근 러시아 경제의 회복세를 반영했음.
- S&P와 Fitch는 각각 2008년 12월 및 2009년 2월 신용등급을 BBB로 한 단계 낮추었고, Moody's는 2008년 12월 기존 등급(Baa1)을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긍정적(positive)에서 안정적(stable)로 변경했음. 그러나 2009년 하반기 이후 러시아 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냄에 따라, S&P는 2009년 12월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조정했고, Fitch는 2010년 1월 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조정한 후 9월에 다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함.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US EXIM : 제한적 인수 가능
- ECGD : 중단기 인수 가능
- Hermes : 단기 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외채상환태도

2005년 IMF 차관 조기상환

- 2005년 1월 IMF 대기성차관 33억 달러를 조기 상환했으며, 2005~06년 2년에 걸쳐 파리클럽채무 430억 달러도 전액 조기 상환함에 따라 IMF 등으로부터 추가 차관을 받을 가능성은 낮음.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연체비중 미미

- 2010년 11월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인수승인잔액은 단기 36억 달러, 중장기 328억 달러이며, 이 중 단기 1,500만 달러(0.4%) 및 중장기 2.4억 달러(0.7%)가 연체 중이며 중장기 연체금액 중 1,980억 달러는 회수불능 상태이나, 인수승인잔액 대비 연체금액 비중은 크지 않은 편임.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러시아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8,088	9,748	4,194	2,974	자동차,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수 입	6,977	8,340	5,789	4,956	
합 계	15,065	18,088	9,983	7,930	

*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국교수립: 1990. 9. 30 (북한과는 1948. 10. 12 수교)

□ 주요협정: 형사사법공조조약, 원자력협력협정(이상 '99), 에너지분야협력협정('00), 관광협정('01), 항공협정('03), 우주기술협력협정('04), 가스산업협력협정('06), 비자협정('08)

□ 2010년 양국간 교역량 회복세 시현

○ 러시아와 한국은 1990년 9월 국교를 수립한 이래 양국간 경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2008년 기준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180억 달러를 기록함.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교역규모는 99.8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으나, 2009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2010년 말 기준 177억 달러 규모로 회복되었음.

*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5위 수출상대국이자 수입상대국임(2010년 말 기준).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그 부품, 합성수지 등이며 수입품목은 원유, 석탄 및 석유제품 등 1차 산업임.

□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감소세

○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2010년 말 기준 17.3억 달러(343건)로, 2006~09년 연도별 투자금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010년 연간 투자액은 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3% 감소했음.

□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기대

-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이해 9월과 11월 두 차례의 정상회담 외에도 한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등을 통해 상호호혜적인 협력 분야 발굴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음.
- 양국은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정상회담 직후 러시아 경제현대화 분야 협력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민간 차원에서도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 협력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해 유망분야 협력 강화의 전기를 마련해 향후 경험 활성화가 기대됨.

V. 종합의견

- 러시아는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00년 이후 최초로 2009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과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나, 2009년 하반기 이후 고유가에 힘입어 점진적인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원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수출이 총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등 유가의 향방에 경제가 좌우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산업구조 다양화를 위한 경제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푸틴 총리 체제 하의 정치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도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 및 EU와의 관계는 점차 개선되고 있고 중국과의 협력관계 또한 강화되고 있음.
- 2008년 하반기 중 외환보유액 급감, 유가 하락, 대규모 자본 유출 등을 이유로 국제 주요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으나, 2009년 하반기 이후 신용등급 전망을 다시 상향조정하는 추세임. 특히 OECD는 2011년 1월 국가신용도 평가회의에서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해 최근 러시아 경제 회복세를 반영했음.

책임조사역 허정옥 (☎02-3779-6653)
E-mail : johuh@koreaexim.go.kr